

양계업의 전망은 어두워.....

* 부로일러 생산원가는 300원인데 시세는 200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원료가격 등귀로 사료가격은 또다시 인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 양계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영위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영을 개선하여야 하고, 사료자원을 개발하여야 하고, 사료의 질도 더 개선되어야 하고, ...눈앞에 닥친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월간양계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점을 설문을 통하여 그 대답을 구해 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우선 사료가치 인상 될 전망에 대한 의견과 양계업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았는데 한결같이 대답은 「양계업의 전망은 암담하다」로 나왔다.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

<설문 내용>

1. 9월말이나 10월초에는 다시 사료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과거 96\$로 도입한 옥수수가 9월중에 품절되고 9월말 부터는 132불짜리 옥수수를 사용하여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료가격 인상으로 야기될 문제점을 검토하면 어떤것이 있겠습니까?
2. 사료가격이 인상 되더라도 품질의 개선은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료공장과 양계업자가 취해야할 최선의 대응책은 무엇 이겠습니까?
3. 경영개선을 위하여 실제로 실행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소개하여 주십시오.
4. 현재 조건하에서 계란, 부로일러의 생산원가는?
5. 농협에서 실시하는 2중난가제도에 대한 의견은?
6. 정부, 협회등 관련기관에 바라고 싶은 점은?

<도착순으로 게재>



양 창 옥
<고선농장>

1. 양계업의 전망은 어둡다.

양계산물 생산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사료 가격이 또 오르면 타격은 이루말할 수없이 크다고 본다. 전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양계업의

앞날은 암담하다고 본다.

2. 통합체제를 도입할 것

사료 가격이 오르고 생산비가 오를 때일 수록 사료공장과 양계장은 일심 단결해야 한다. 사료공장은 과감히 인테그레이션 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은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양수수를 줄이고.....

우선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양수수를 대폭 줄이고 있다. 사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단미사료를 구입하여 배합사료에 섞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일이다.

kg 당 생산비 430원 / 1.5kg = 287원

4. 부로일리는 kg당 287원

9월초에 출하한 부로일리의 생산원가를 간단하게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초 생 추 : 80원
사 료 : 307원(평균 출하체중 1.5kg, 사료효율 2.92, $2.92 \times 1.5 = 4.38$ kg(사료 섭취량) $4.38 \text{ kg} \times 70 \text{ 원} / \text{kg} = 307 \text{ 원}$)

약 품 : 10원
인 건 비 : 13원
감가상각비 : 5원
금 리 : 13원
잡 비 : 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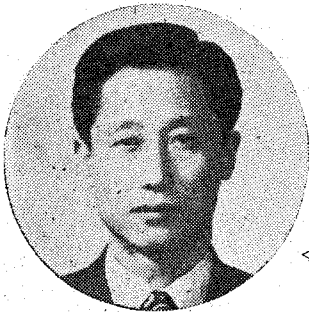
430원

5 이중난가제는 좋은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를 보면 전시효과에 그친감이 있어 아쉽다. 한번 실시하게 되면 철저히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닭고기에 있어서도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였으면 좋겠다.

6. 사료자원 개발에 힘쓰라.

관련기관은 사료의 수입의존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사료자원을 적극 개발 해야 한다.



최 성 식
<중앙대학교교수·농박>

배합사료 원료의 주종을 이루는 옥수수(수)는 얼마전까지 96볼로 도입되어 사용하던 것이 다시 9월 중순부터는 132볼짜리 옥수수를 사용하게 되었고 또한 국내원료도 양적인 부족으로 그 가격이 상당히 올랐으며 앞으로 더욱 오를 기세에 있다. 이러한 원료사항을 볼때 배합사료의 가격조정은 재차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사양가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므로써 앞으로의 축산물 수급에 큰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까 우려된다.

물론 사양가들은 당분간이나마 더 오래 가격억제를 바라겠지만 이는 과거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곧 배합사료의 수급문제와 품질문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가격현실화라 하면 곧 원활한 사료수급과 품질개선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 한국실정하에서는 부분적 조정만으로서서는 거의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가기란 불가

능하며 총괄적이고 과감한 행정적 시정만이 전반적인 사료 문제의 해결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발전의 길을 터주는 일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몇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제의 하고자 한다.

(1) 배합사료의 다양화와 경영개선문제

한국 실정에 맞는 실리적 배합사료를 장려하려면 각 회사에서 여러가지 열량가를 기준한 여러가지 단백질 수준의 사료를 판매케 하고 주문배합도 아울러 장려 함으로써 사양가들로 하여금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사양방법을 모색 실천케 하므로써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이윤 감소를 경영개선에서 회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케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각 회사는 사료의 다양화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혼돈을 막기위하여 사료의 다양화에 따른 적절한 기술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사양가와 사료메이커간에 긴밀한 유대를 갖게되어 사양가와 사료메이커간에 긴밀한 유대를 갖게되어 더욱더 사료품질의 개선과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또한 직거래 판매제도가 점차 확립되므로써 그만큼 중간마진이 축소될 것이다.

(2) 공정규격과 벌칙규정의 완화

사료의 다양화와 주문배합제도를 장려 하려면

현행 정부의 공정 규격을 철폐하고 그대신 각 회사의 제품 등록 제도를 실시케 하여야 한다.

그간의 공정규격 폐단은 급진적으로 발전해가는 사료공업에 있어서 정부의 공정규격은 항상 시대에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시정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야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 공정규격도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거나 현실정에 알맞는 것이 되어버려 문제는 여전히 또다시 남게된다.

사료문제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이 시점에서는 사료공업의 사활문제는 우선 각자가 타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유를 줄 것이며 실제 각회사는 그러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정부의 공정규격과 검사제도의 목적은 벌칙을 가하는 데 있지 않고 사양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료공업을 육성 발전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검사제도와 벌칙규정을 검토해보면 다분히 제재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모든 사료메이커는 공정규격과 가격상한선에 맞추어야 한다는 두가지 압박 때문에 사료품질의 개선또는 개발이란 명제에 조금도 여유가 없으며 궁여지책으로 항상 정부의 이 두가지 제재를 매꾸는데 여념이 없는 것 같다.

2년전인 생기가 넘치고 의욕적이었던 사료공업시대라 한다면 현재는 너무 억압되어 발전의 여지가 조금도 없는 퇴보적인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철폐된 사료공업에 활력소를 주입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실검사제도는 계속실행하되 검사결과를 사료협회와 해당사료회사에 통보하여 잘못된 것은 그 시정을 촉구하며 사료협회는 그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이로 하여금 해당사료의 위배된 동기와 원인등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해소키 위한 기술또는 시설보완을 시한부로 촉구케 하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서 행정 당국은 규제를 가하는 그러한 제도가 검사제도의 근본 목적이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사료가격의 현실화

가격의 현실화는 원활한 사료의 수급 및 품질

개선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또한 사양가들을 위하여 사료의 다양화와 주문배합제도를 장려하려면 한층더 가격책정에 있어서 사료공장측에 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대로 사료메이커와 사양가간에 긴밀한 유대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적절한 가격은 이양자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사양가가 원하는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각 회사간의 경쟁은 자연히 품질과 기술지도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격상한선을 하루빨리 철폐한다면 사료공급에 최대의 활력소를 주게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4) 사양가가 취할 태도

각 사양가마다 사양규모, 사양시설 및 사양방법이 각양각색이므로 일괄적으로 무엇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단지 자기가 습득한 지식에 의해서 자기 주위 사정에 맞도록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일반적으로서 몇가지 지적하면

- 녹사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것
- 위생과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
- 겨울에는 보온을 여름에는 방온에 좀더 신경을 써서 사료효율을 높히는데 주력할 것.
- 적어도 10%내지 20%정도의 원료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출 것. 특히 일부 곡류나 두과류를 재배하도록 하며 그러한 능력범위내에서 사양규모를 조절하는 것을 촉구하고 싶다. 그러한 자기가 생산한 원료와 병행해서 적절한 배합사료를 사용한다면 사료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단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단미사료는 사용하지 말도록 부탁하고 싶다. 왜냐하면 사양가들도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료메이커와 원료구입에서 경쟁하게 되므로 결국은 원료 구득난과 사료가격양동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어려울 때일 수록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생산비 상승에 加重

이 현 법

<퓨리나코리아
기술지도부장>

1. 새로히 도입되는 옥수수 가격은 132\$로부터 160\$선까지 도입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없었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료비의 비중이 더욱 높아져 생산비 상승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클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의 물가여건으로 보아 원가 상승만큼이나 판매가 보조를 맞추어 주질 못할 것도 예측이 된다. 이러한 경우 양계규모의 후퇴가 또 다시 강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솔직히 말해서 이상의 사태를 아무 누구도 해결 시킬 수는 없을 것이며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른 자연적인 가격형성의 방법이 해결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양계가는 새로운 생산비 구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하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계군 유지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실점에서 가축 통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결론지어 말할 수 없지만 금년에 있어서 사료공급과 가격파동이 상당수의 양계 규모 후퇴를 가져온 듯하며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서 난가의 상승이 이루어져 갈 것으로 추측된다.

2. 사료의 품질개선이란 말이 흔히 거론될 때마다 진실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품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경우 생산성이 떨어져서인지 혹은 생산비가 너무 올라갔는지에 대한 구분이 분명치를 앎다. 품질이란 닭의 능력발현이란 점에서 표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산능력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사료비를 가지고 말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에너지, 고단백 사료가 중에너지 중단백 수준의 사료보다 품질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가격이 같은 조건이라면 고에너지 고단백의 사료가 좋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가지의

사료가 가격이 같을 수는 절대로 없으니 그렇다면 이들 사료의 생산성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물론 생산능력의 발현은 나타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비교할 것은 단위 생산에 드는 사료비의 다과를 가지고 품질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니 고에너지 고단백의 산란계 사료나 중에너지, 중단백 수준의 사료가 똑같이 닭의 최고 산란율을 올리고 또한 산란지속도 유지시키는데는 마찬가지로 된다. 단지 다른 것은 계란 1개 생산에 드는 사료량이 많고 적은 차이가 있으므로 품질의 우수성을 평가하기에는 최소생산비성장에 의하여야 한다. 만일 1일 산란계 한마리가 100gm을 먹는 사료(A사료)를 만들기 위하여는 kg당 80원이 든다고 할때 120gm을 먹는 사료(B사료)를 만들기 위하여는 65원이라고 할때 80%산란시 계란 1개당 사료비는 어떻게 달라질까?

$$A \text{ 사료} \cdots 100\text{gm} \times 80\text{원/kg} \times \frac{100}{80} = 1,000\text{원}$$

$$B \text{ 사료} \cdots 120\text{gm} \times 65\text{원/kg} \times \frac{100}{80} = 975\text{원}$$

따라서 우리는 B의 경우를 더 높히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복잡한 원료가격 여건하에서는 위와 같은 최소생산가 사료의 생산이 더욱 절실해지므로 이러한 배합이론을 이해하여 사료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3. 사료지원의 개발

사료의 요구량이 급증함에 따라 사료 원료의 자급화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못함에서 불균형은 자꾸 더해 갈뿐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시키는 길은 사료원료의 생산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가장 요구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사료포장의 개발비보조, 계약생산, 기타 영농보조 및 사료원료 공정에 대한 보조등을 들 수 있다.

기타 사료공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량이었지만 아직도 폐기되고있는 많은 식품제조 부산물 또는 해신부산물등이 있다. 예를 들면 커피박, 간장박, 된장박, 엿빚비지, 맥주박, 누에 번데기 등을 익힌단 기공을 한다면 충분히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양 프로그램면에서는 이미 수처에 걸쳐 소개된바 있는 제

한급이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사료의 절약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4. 계란의 생산비 계산

계란의 생산비를 단적으로 계산하여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다음과 같은 산출 기초에서 약 13.50~14.00원이 될 것이다.

비 목	계란개당비용	산 출 기 초
① 육성계 상가비	1.50원	① 초산시까지 육성비 700원/마리 폐계 판매 1.6kg×200원
② 사료비	10.85	② 산란 지수:240개/마리 성계 편입 년평균 산란률:70% 사료 소요량 170gm/계란 사료비 62원/kg
③ 인건비	0.50	③ 2,000수/1인 20,000원/월
④ 경영주 급료	0.20	④ 경영규모 6,000수 경영주급료 60,000원/월
⑤ 건물상가비	0.21	⑤ 30,000원/평÷30수/평 ÷15년
⑥ 기구상가비	0.10	⑥ 200원/마리÷10년
⑦ 광열비	0.15	
⑧ 약품	0.10	
⑨ 기타	0.10	
계	13.71원	

10%인상에 20%의 노력을

김 정 인
<신촌사료 생산부장>

1. ㄱ) 도입곡류가격의 폭등은 곧 가축사료에 있어서 에너지값이 오른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국내의 사료는 저열량저단백 사료로서 가장 경제적인 포인트를 찾아서 연구생산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ㄴ) 실용계의 도입에 있어서 종합적인 재평가

5. 이중난가제도

농협에서 실시한다는 이중 난가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둘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하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라 하겠다.

시장의 가격형성면에서 완전히 조절이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기금(예산)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조절은 가능하겠지만 이때는 자칫하면 생산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쉬울 것이다. 더욱이 미세한 예산을 가지고 난가조작을 시행한다면 심리적으로 생산자에게 미치는 효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등이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오히려 자연적인 난가형성(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발전되어가는 양계업계의 질서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6. ①현대는 정보시대라고 한다.

축산업계의 대한 국내외의 정확한 통계자료와 기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주기를 바라며 이는 각 생산자에게 스스로의 사업전망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② 어떠한 정책적인 계획수립에 있어서 관제업자와의 광범위한 대화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외국에서는 산란계를 더욱더 소형화하고, 영양가 높은 사료로 최소면적에서 최대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육종되고 있으나 국내사료의 수준은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소형고산란종보다는 중형종이나 유색종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며 학계의 협조를 얻어 이를 규명하여 경영상 유리한 품종을 사육하여야 하겠다.

ㄴ) 농산물은 경제학상 완전 경쟁품목이며 계란도 이의 한 부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완전 경쟁이란 생산자 및 소비자가 매우 많아서 인위적으로 가격형성이 잘 되지 않는 상태의 시장거래상황을 말하는 계란의 공급량이 감소되거나 소비량이 크게 늘지 않는 한 양계업자의 흑자경

영은 큰 시련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자본력이 약한 영세양계업자의 탈락은 필연적일 것으로 본다. 즉 계란가격이 적정수준까지 올라가려버는 공급량의 감소, 즉 약한 양계업자의 희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ㄹ) 국민들이 축산물소비량이 일시적으로 격감할 우려가 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축산물 출하량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2. 사료공장—일반적으로 사료의 품질이 나쁘다 좋다 하는것은 단순하게 평가된 문제가 아니라 저단백저열량사료로의 생산이 불가피한 현재의 여건하에서도 단순한 가축의 채식량증가만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연구 생산하여야겠다. 무모한 생산으로 산란율을 일시에 10~20%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것이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많이 보이듯이 저단백저열량사료로서도 메치오닌 라이시딘의 필수아미노산 및 각종 미량영양소의 적절함유로 고단백고열량사료에 못지않는 성적을 올린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양계업자—통상 관리기술만의 차이로 같은 배합사료를 급이한 계군에서 산란율이나 생존율을 10%정도씩 개선시키는 예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아왔다. 양계업자는 무리한 자금투자를 삼가하고 최선의 관리로서 닦아올지 모를 양계파동에 대비하여야겠다.

사료가격이 10%인상된다면 20%의 노력을 가한 정밀양계를 하겠다는 결심과 양계파동이 3개월이상 지속한 예가 별로 없다는 전례를 상기하여 이를 견디어 낼수있는 자금력을 항상 확보할수 있는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정부에서는 자급사료 개발을

이 철 용
<소신중계원>

1. 사료가격 인상은 부득이한데 비하여 양계산물 가격인상은 절대 절망에 가깝다고 본다.

또한 알맞는 품종의 닭선택과 사료선택이 지극처럼 중요한때도 없다는점을 강조하고 싶다.

3. 사료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소개할것이 없다. 단지 다양하고 질좋은 원료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값싸고 질좋은 배합사료의 생산에 진력할 뿐이다.

5. 한마디로 좋은 제도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이중 난가제도가 소비자보호의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는것과 같이 계란등 양계산물의 가격이 생산가 미만으로 폭락할때는 같은 방식인 고가매입 저가판매로 축산업자를 보호할수 있는 방안이 아울러 강구되어 있어야 할것이다. 이 두가지의 방법에 대하여 확고한 정책수립이 되어 있지않다면 일시적으로 생산자에게만 부담을 주게 되므로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계란가격은 함부로 조작되어 상승하는것이 아니고 사료가격의 계속인상등 복합요인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후 시행되어야 하겠다. 전번 일부 여성단체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에 계란등 농산물이 포함되고 있었는데 그들의 짧은 두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싸다고 하는 농산물중 계란가격등은 한두명의 양계업자가 폭리를 보겠다고 해서 가격형성이 된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원인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6. 계속적으로 국제시세를 예민하게 조사해서 값싸게 원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국내자원개발사업에 좀더 진력하여 위기를 해소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물론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단백질원인 달걀과 계육값이 낮을수록 좋겠으나 축산물 가격이 생산원가에 비하여 이에 비례치 못할경우 축산업을 그만두어야 되므로 축산물은 시중에서 없어지든가 생산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겠다.

사료원료의 생산국인 미국의 난가보다도 반값에 거래되어도 소비자들은 비싸다는 평이므로 기가찰 일이다.

“축산물의 가격형성은 생산원가와 비례치 않

는다는 문제”는 결국 우리 양계인들에게 예의없는 도산을 초래할 것입니다.

2. 배합사료 가격이 얼마나 인상될지 예측을 불허하나, 대략 옥수수의 가격이 96\$:132\$은 약 40% 인상되는바 배합사료중 옥수수가 50%일 경우 배합사료 원가는 20% 더들게된다.

금번 배합사료 가격이 20% 이상 인상되면 질이 더욱 좋아질 것이고 그 이하 인상되면 배합사료의 질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보인다.

3. 현 사태로보아 경영개선은 힘들다.

1) 계란, 계육 생산원가의 80%가량이 사료값이라는 점.

2) 양축업자로서는 자급사료개발 하기엔 힘이 미약하므로 각 배합사료 회사나, 정부에서지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뚜렷한 자급사료 생산품이 없다는 점.

3) 양계산물 유통질서가 불합리 하다 는점.

4) 금번 수입된(자세히는 모르나) 무상원조 물자인 쏘세지 통조림이 국군 군납용 닭으로 대체 예정인바(약 3~4년간)이는 우리나라 육계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점.

5) 법적 통제가 없이 무모하게 과잉생산(대책도 전혀없이)되나 속수무책이며.

6) 그러므로 축산인은 사양규모를 적절하게 축소시켜 경비절감, 생산과잉 방지, 배합사료소비량절감등이 요망됨.

4. 계란과 계육의 생산원가는 백번 따져봐도 알아주는 이도 없고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계란 : 16.99원

육계 : 310 원

(산출근기만 10페이지자나 되므로 생략함)

5. 양계인에게 이익도 (시중 가격에 구매했으므로) 소비자에 이익도(부패란이 적지않게 있다 고함), (란가가 폭락될때 구매하여 폭등할때 팔아야 되는데 오를때 구매하여(시중가격에)폭락할때 팔았기때문), 별로 없다고 본다.

6. 1) 그간 정부와 각 협회의 노력에 감사한다. 정부에서는 축산물 생산과 유통을 유효하게 조절해야 한다.

생산이 된후의 대책은 이미 때가 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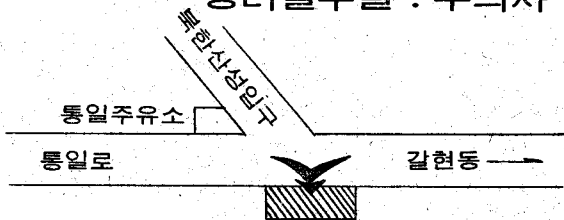
2) 자급사료 개발은 정부에서 했으면 한다.

북부지구의

약품 구입은!

1. 가축약품
2. 농 약
3. 인체약품

병리실부설 : 수의사 양창욱



新 進 藥 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진광동 533 - 1

TEL. 38 - 5001 · 8601 交 1533

신
진
약
국